

뜻자리 깔고 즐기는 세계 음악의 대향연



8월 29~30일 5·18 민주광장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2010년 시작 20주년 기념 대표 음악축제 자리매김
쿠바·이탈리아·프랑스 밴드 등 10개국 12팀 참가

세계 각국의 전통 민족음악에 뿌리를 둔 '월드뮤직'은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장르였다. 지난 2010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시작한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그 발화점 역할을 한 후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한 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제 중 하나가 됐다.

전남대학교, 품앗이문화재단 등 광주 지역 곳곳에서 열렸던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지난해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주무대로 활용하며 다양한 음악을 선사해왔다. 또 친구, 가족과 삼삼오오 뜻자리를 펴고 앉아 맥주 한잔씩 마시며 편안하게 관람하고, 흥에 겨운 관객들이 자연스레 함께 춤을 추는 장면들이 하나의 풍경이 됐다.

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 자리매김을 위한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여섯번째 행사를 준비한다. 오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히 9월 7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 열리는 대규모 문화 행사로 시민들과 축제 한마당을 꾸밀 예정이다.

올해 페스티벌 역시 첫 행사부터 감독으로 참여한 인제대(자라섬국제페스티벌 총감독)씨가 음악감독을 맡아 라인업을 짰다.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무엇보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함께하는 가족형 음악축제로 사랑 받아왔다. 올해 역시 야외광장에서 뜻자리를 깔고 앉아 음악을 즐기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어간다. 특히 이번 축제는 수준 높은 세계 음악 공연과 함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무대는 세계 월드뮤직 스타들이 공연을 선보이는 '하늘 무대'와 '바람무대'를 비롯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마추어 밴드 8팀을 만날 수 있는 '반디 무대' 등 모두 세 개가 마련됐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정열을 뜨겁게 보여줄 쿠바의 '라 담 블랑슈(La Dame Blanche)', 이태리 음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밴드로 평가받는 '칼라시마(Kalascima)', 프랑스와 레바논 연주자들로 구성된 '바카르 마르 칼리페(Bachar Mar

Kalife)' 등이 무대에 선다.

국내 뮤지션으로는 재즈 명곡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해석해 선보일 한국의 '제이케이(JK)김동욱과 재즈세션 지브라(Zebra)', 한국 음악인 최초로 영국 서머싯 필던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노천 음악축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인디 밴드 '솔탄 오브 더 디스크' 등 세계 10개국 12개 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체 출연진은 오는 7월 말에 공개된다.

'반디 베틀시장(축제 베틀시장)'도 문을 연다. 재활용 장터 운영, 다양한 먹거리 판매 등 일반인이 참여하는 20여 개의 판매 부스가 설치된다.

'반디무대'와 '반디 베틀시장'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홈페이지(www.gjwmf.or.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GJWMF)으로 지원할 수 있다. 모든 공연과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2-226-89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JK김동욱과 재즈세션 지브라



'라담 블랑슈'



'칼라시마'

전남문예-GS칼텍스재단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문화예술위원회 '민·관 협업 사업' 지원 대상 선정

협업은 문화예술을 증추해 했다.

전남문화예술재단과 GS칼텍스재단이 지난해부터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음악캠프'(사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3월 발족한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는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 문화예술지원기관 간 최초로 설립된 협의체다. 지난해의 경우 총 10개의 공공과 민간 협업사업을 지원했다.

전남문화예술재단과 GS칼텍스재단은 지난해 4000만원을 들여 이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도서지역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 강사에게 악기 연주를 배워 직접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도 이 두 기관은 오는 8월 18일~21일 전남여성플라자 대공연장 등지에서 학생 50명과 교육강사 60명이 참여하는 '서부권 관악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연다.

국내의 유명 대학 관악기 전공 교수들이 수업을 진행



하고, 참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도 개최한다.

또 오는 12월에는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공연장에서 '동부권 현악 오케스트라 음악캠프'를 연다. 이 캠프는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와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한편 이 지원 대상 사업은 인천문화재단과 대산문화재단, 교보문고가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사업의 일환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북콘서트'와 고서점가 체험답사 사업 등 총 16개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먹과 빛의 향연'展

한국화동질성전 초대 내달 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오는 8월2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미술단체 '한국화동질성전'을 초대해 '먹과 빛의 향연'전을 연다.

한국화동질성전은 1991년 중앙무대로 편성된 미술계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한국화 화단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출발한 단체이다.

올해까지 27회째 전시회를 열고 있는 한국화동질성전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8개 지역 120여명의 한국화 작가들로 구성됐다. 올해는 김중경 등 97명의 한국화 작가가 참여해 모두 9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가 중앙무대로 편성되는 것을



김현숙 작 '꽃에 노닐다'

막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다. 문의 062-613-539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담양 대담미술관 레지던시 참여작가 최정미씨 발표전

담양 대담미술관은 오는 8월5일까지 '2015 대담미술관 레지던시' 참여작가 최정미씨의 개인 중간 발표전을 진행한다.

전시 주제는 '시간의 기록-자연의 빛, 바람, 물, 공기 그리고 대나무'. 최씨는 대나무와 자연 등을 통해 대담미술관에서 보낸 시간을 기록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자연과 풍경이 추상으로 담겼다.

최씨 작품의 특징은 다양한 색채와 반복적인 붓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작가가 표현하는 화면 속 세계가 때로는 하나의 풍경으로, 정서로, 이상향으로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작가는 단순하게 풍경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극히 관념적인 느낌과 서정을 담아 풍경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최씨는 성신여대 미술대학, 프랑스 리모주 국립고등학교, 프랑스 프와티에 종합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빛으로 바람으로'

로고스전원갤러리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그림으로 만나는 풀꽃이야기' 시리즈가 있다. 문의 061-381-008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진료문의 (062) 227-7575**

전문의, 전 중신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